

미국 닭고기 가격정보 체계 및 유통실태

□ 미국내 닭고기 가격 정보

○ 닭고기의 가격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은 없으며 Agri Stats은 생산자 입장에서 Urner Barry는 바이어 입장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두 곳이 닭고기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주요 사설기관임

○ Agri stats

- 140여개 업체의 계속의 생산·판매 관련 데이터 일체를 제공하며 자료 비용은 연 9,000달러임(사육부터 부화까지 전과정에 걸친 데이터)
- 데이터의 양이 매우 방대하며 사업장별로 나뉘어서 제공되기 때문에 각 데이터가 어느 기업의 데이터인지 확인할 수 없음
- 미국내 닭고기 생산 업체의 세세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
- 관련 DB는 하드카피로 매주 발간되며 매일 프린트물과 이메일로 데이터가 업데이트됨

*현재 브라질 지역의 닭고기 가격 정보 또한 제공하고 있음

○ Urner Barry

- 양계 농장에서 첫번째 소비자들에게 나가는 일반적인 가격 정보임
- 바이어 입장에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 판매가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이 제공되는 경향이 있음
- 관련 DB는 이메일 혹은 프린트로 매주 발간되며 연 5,000달러임
- 품목별 가격 동향에 대한 커멘트가 제공됨

□ 미국내 닭고기 유통정보

- 미국내에서 가공된 뼈없는 닭가슴살이 주거래 상품이며 거래처에 따라 공급가격이나 계약 방식이 다르게 적용됨
- 계약 방식
 - 트레이에 랩을 싸서 파는 리테일 상품들은 회사에 따라 3, 6, 12개월 단위로 가격을 계약해 거래하거나 때로는 연중 가격으로 고정함
 - 최근 곡물값이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생산 비용의 등락폭이 크면 3개월 단위로 계약하기도 함
 - 일반 유통마켓에서는 리테일 판매가를 고려해야 하므로 가격의 변동폭을 크지 않게 제공함
 - 특히 델리용(8조각) 상품은 대부분 연중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음
- 부위별 주요 공급처
 - 닭가슴살: 일반 그로서리 마켓, 대형 유통업체 등
 - 생 통닭: 일반 식당, 델리마켓 등
 - 다리, 날개: 대형 치킨 체인점(KFC, Popeyes), 주류전문점 등

□ 미국내 닭고기 수급 정책

- 미국은 정부가 닭고기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펴고 있지 않으며 투명하고 자세하게 제공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수요·공급의 원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급이 조절되는 양상임
- 닭고기 산업내 정부 기관의 역할
 - 대표적으로 식품안전검사국(FSIS)에서 안전관련 인스펙션을 정밀하게 진행함
 - 수요공급 체계가 경제 이론과 같이 유지됨에 따라 정부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뇨 처리 시설에 대한 지원만 진행함

○ 닭고기 생산업체의 수급조절 정책

- 미국내 최대 닭고기 생산업체인 타이슨은 Agri Stats의 데이터에 따라 과잉 공급이라 판단되면 가격을 일시적으로 할인하거나 배송시기를 앞당김
- 배송시기 조절로도 부족하다면 종계닭인 어미닭을 일정수량 도살하거나 병아리를 매장시켜 수급을 조절함
- 생산이 부족한 업체가 과잉생산된 업체로부터 닭을 제공받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극소수 양계 업체 간에서 이루어지며 시기를 조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실정임

“<저작권자 ©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& kati.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>”